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학교 - 대구 장성초등학교

2004년 개교한 대구 장성초등학교는 19학급규모로, 600여명의아이들이' 꿈과 창의성, 인성 을 담고 있는 행복한 집이다. 자연과어우러진학교건물, 교실을 비롯한다목적교실, 시청각실, 식당, 화장실 등 아름다운 공간들은 미래를 준비하듯역동적이다.

주변환경과조화되는토지이용계획

이 학교는 대구 성서 나들목 북동쪽에 위치하고있다. 남측은주거시설및근린생활 시설, 그리고 북측은 어린이집과 전답으로형성되어있다.

주출입구는 현재의 부지에서 동측 20m 도시계획도로에접하도록계획하였고, 부출입구는12m 도시계획 도로에 두었다. 주축으로 교사동 - 운동장을 배치하고, 교사동을중심으로 차량 출입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였다. 운동장과 교사대지 간 지반 높이 차이는 평균 1.3m 정도로 평지이다. 하지만부지 외곽과의 지반고차이는1.5m 2.0m 내외로주변대지보다 낮은 부분의 배수 상태는 개선되어야한다.

대지의남측에는1 2층규모의주택과 근린 생활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시야가 비교적 양호하며, 동측과 북측은 조망이 좋다. 서측은 구마고속도로가 관통하여 소음발생을가지고 있어북측소음원 영역에운동장을배치하고남측에교사동을 배치하였다.

다정한 도시적 정면성 확보

제7차 교육 과정 수용을 위한 교육 기본 시설과 정보화 · 첨단화에 따른 학교 시설설비의현대화를꾀하였다. 또한, 대지가 지닌 자연적 조건에 맞추어 최대한 일조와 채광을 확보하고, 학교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군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방문과 차량 등의 이동시 간섭을받지 않도록하였고학년별, 학습별영역을확보하였다. 그리고 진입 도로에서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완충공간(buffer zone)을두었다.

교사동에교사및학생들의이동이원활하도록연결통로를설치했으며, 교사동1층을부분적으로피로티로처리해동선을 짧게 하고 부근을 진입 광장으로 조성해 진입의흥미를유도하도록계획하였다. 특별교실, 지원시설등중 · 고학년과개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지역 주민의 이동이 편리한 곳에 배치했으며, 수직 동선에 서옥외로의출입이용이하도록하였다.

나아가 실별 기능의 변화에 대응한 유동적인 평면 계획으로, 학년별학급 교실을 층별 영역으로 분리하고 다목적 공간과 교사 연구실을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여 다양한 학습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각각의영역과영역이만나는곳은휴게공간을두었다. 저학년교실은종합교실형으로모든학습이가능하도록충분한 수납공간을두었다.

돋보이는점은외벽인데적벽돌과화강석 버너구이를 동시에 사용하여 건물이 주는 위화감을 없애고 다정한 도시적 정면성을확보하고있다.

자연과문화가숨쉬는학교

빨간장미를한 아름피웠던장미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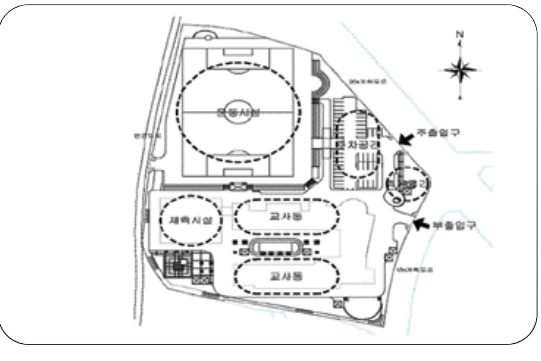
무 길을 사뿐사뿐 걸어가는 여학생들. 생태 연못 안 물고기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춤을 춘다. 학생들의 편안한 보금자리장성의교정은마치작은 숲속에 와 있는것처럼푸르고아름다웠다.

학생들은교정을거닐며자연보호사랑을 스스로 배우고 실천한다. 습지 공간이 친환경공간으로변화해어류, 곤충, 조류, 식물등자연이숨쉬는생명의공간이됨으로써아이들에겐더없이좋은자연학습장이 되었다. 야생화 동산은 해마다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선물하고 있다. 교정 곳곳에 학생들과 함께 숨 쉬고 있는 자연이천진난만한아이들만큼싱그럽다.

책 한권에 마음의 키 1cm를 쑥쑥 자라게 하는 장성도서관! 다른 시 · 도에서 벤치마킹하는 쾌적한 쉼터이며 종합 학습문화센터인 장성도서관은 MP 플레이어, 빔 프로젝트, e-북, DLS 대출시설등최첨단 시설을 갖추었다. 의자 하나하나와 벽면 색상, 천장의별자리까지도아이들눈높이에맞추었다. 독서토론방, 문헌정보실등 다양한활동공간을둠으로써학생들의도서관출입은즐거운일상이되었다.

복도 한 면에 다양한 장르의 명화가 걸려있는것도눈에띈다. 어느작은갤러리에 온 듯한 분위기로, 작품의감상력을 높이기위해조명을설치하였다. 학생들은급식을위해식당으로가는길에이곳을지날 때마다위대한화가의그림을감상하며가슴에문화의향기를아로새기고있다.

시설배치도.



지역주민과함께하는열린학교

학생들이등교하여교실을향해제일먼저들어서게되는현관. 나의미래나의희망을 키워줄 장성의 이야기들이 학생들을 맞는다. 이달의위인, 이달의영화, 이달의 시를보면서장성인의하루를시작한다.

학교 외관은 또 어떠한가. 건물 동마다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시선을 멈추게 한다. 둥글고네모난형태로 독특한 미를 갖추었다.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가도 학교를 한번 휙 돌아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질 테고, 공차기를 하다 학교 건물이 너무 예뻐 눈을 돌리다 공을 놓치지는 않을까. 도로의방음벽까지인테리어로장식하였다. 그리고 ‘ 전통 문화의 날 ’을 정해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까지도 한복을 입고 예절을배우며전통문화를체험한다.

이처럼 장성은창의성과 인성으로 꿈나무들을키우는명문학교로발돋움하고있다. 작년에는 ‘ 전국 아름다운 학교 ’ 환경부 장관상수상을 비롯해 창의성교육, 과학 교육에서 교육감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 연수회를 비롯해 전국 아름다운 학교 관리자 연수회 등 21세기 교육 터전을 방문하는 행사가 줄을잇는다.“ 학교는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곳이며 지역 주민들의문화공간입니다. ”언제나열려 있는 학교를지향하는구창남교장선생님의신선한 마인드로 학교에는 비즈 공예, 분경 전시, 컴퓨터공부방, 배드민턴교실등학부모들의 작은 평생 학습 공간이 탄생했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학교를 찾아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열었다.

학교의 멋이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것이어야 한다. 열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에 장성은 분명 좋은 본이 되는행복한학교였다.‘ 높이나는새가멀리 본다 는 말처럼 장성의 꿈나무들은 높은긍지와자부심으로새롭게생각하며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저 높이 나는 새처럼 큰 꿈을 향해웅비하고있다.

도서관의아낌없이주는나무.

장미꿈길.

비오톱생명이머무는보금자리.

정관영
충북교육청건축사무관(공학박사)